

종교개혁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 2015 개정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On the Curriculum and Historical Writings on the Reformation:
Based on The Revised 2015 World History Textbooks**

권태경 (Tae Kyoung Kwon)**

ABSTRACT

The study of the Reformation in the 16th century is important in understanding western medieval and modern history. However, recent world history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do not treat the Reformation as an important event in the 'content system' and 'achievement standard' and 'direction of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 of world history textbooks devaluing or misrepresenting the Reformation. To this end, the content and curricular changes of the Reformation in the textbooks will be reviewed. Then, the description of the Reformation will be analyzed followed by alternative suggestions. The Reformation of the 16th century is an important historical event that i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medieval and modern ages in Europe. Objective description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is needed for the Reformation, aside from the influence of Christian studies. In summary, academic advice from scholars or experts of Reformation is needed on the presentation of the Reformation in the history textbooks.

Key words: reformation, world History, textbook, historical writings, curriculum.

* 2023년 2월 13일 접수, 2월 28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역사교육과 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7361234@gmail.com

I. 서론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reformation)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서양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사 교과서를 보면 역사 서술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그리고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종교개혁의 내용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교육과정안에 따라 집필되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교육부 개정안의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2023년 사용되는 세계사 교과서는 교육부 2015 개정안에 근거하여 집필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근거한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종교개혁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일부 언급한 몇 가지 사실마저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있지 않는 서술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난다. 종교개혁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2022년 고시한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에는 종교개혁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2024년부터 적용될 세계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역사 서술과 내용 체계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개혁이 아니라 유럽의 중세와 근대의 이행기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다. 중고등학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을 배우지 않고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세계사 역사 교과서를 통해 나타난 종교개혁에 대한 서술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먼저 교육부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세계사 과목에 종교개혁을 단원으로 구성한 내용을 살피고, 2015 개정안의 교육과정과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사의 서술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사 교과서 분석을 함에 있어 먼저 4종 출판사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본문에서 서술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역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념적인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학문과 한국의 역사 교육 현장을 고려하면 종교개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루터와 칼빈의 개혁을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보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슬람과 같은 주제가 교육부 교육 개정에 비중있는 교육 체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를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종교적 편향성의 문제이다. 역사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교육 과정을 집필할 때 해당 교과서의 교과목에 부합한 교육 내용을 누락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새로운 2022 개정 교육부 교육과정이

수정 보완이 되어, 향후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계사 교과서의 편찬과 역사서술이 객관적이고 편향적이지 않게 서술될 필요가 있다.

II. 교육과정 변천사와 세계사 교육과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의해 쓰여지는데, 교과서의 역사서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 교과서 집필과 출판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안에 근거하므로, 이 교육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교과서 분석에 필요한 일이다. 2015 개정 세계사 교과서 분석을 위해서는 지난 한국의 교육과정 변천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 변천사를 보면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국가 중심의 공교육으로 근대 교육이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1910년 한일 합방조약으로 일제가 한국의 교육에 관여한 제1차-4차 조선교육령의 시기(1911-1943년)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미군정이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자 한국의 교육을 담당했는데, 임시로 교수요목(1945-1954년)을 제정하고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54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포하는데 이것이 교육부의 1차 교육과정(1954-1963년)이다. 2차 교육과정(1963-1973년)은 교육에 경험을 강조하고, 제3차 교육과정(1973-1981년)은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4차 교육과정(1981-1987년)과 5차 교육과정(1987-1992년)에 통합교과가 시작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년)중에 특이한 것은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된 사실이다. 제7차 교육과정(1997-2007년)에서 수준별 교육과정과 열린 교육이 실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2007-2009년)과 2009 개정 교육과정(2009-2016년)에 역사 교과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2017년-현재)에 미래사회 핵심역량 도입과 창의·융합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최근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이 2024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예고한 바가 있다(교육부, 2022b: '사회과교육과정'; 최상훈, 2005: 207-211).

역사교과(국사, 세계사) 과목에 대한 시수를 보면 1차 교육과정에 사회과 교과로 국사(105시간)와 세계사(105시간)를 할당했다. 2차 교육과정부터 6차 교육과정에 국사를 주당 6시수를 배정하고, 세계사는 주당 4-6시수를 배정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 주당 4시수, 세계사에 주당 8시수를 배정하고, 여기에 한국 근현대사(8시수) 과목을 추가하였다. 2005년부터 역사 과목 강화안이 2007 개정에 반영되어 한국 근현대사 내용이 추가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역사교육 강화안은 중국의 동북 공정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영향을 준 것이다.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구분하고 주당 6시수를 배정하였다. 역사 과목의 필수와 선택과목

을 정하는 것에 특이한 것은 한국사 강화안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를 필수로 한국 근현대사를 심화 선택과목으로 하였다. 2007 개정에도 공통 필수로 역사로 하고, 한국문화사는 선택으로 하였다. 그러나 2009 개정에는 다시 한국사를 선택으로 전환하다가, 2011 개정에서 다시 한국사를 필수로 하면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삭제되었다. 한국사의 심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사 역사 교육의 소외를 가져왔다. 최근 교육과에서 한국사 과목을 정부의 정책과 교육 개정안에 따라 필수에서 선택으로 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교육계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공통과목 한국사와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와 세계사를 역사 과목으로 설정하였다(방지원, 2017: 76).

1945년 미군정 교육 과정안 이후 1차 교육과정에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종교개혁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개혁이 초기 1945년 초기에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이 중단원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1954년부터 교육과정에 대단원과 중단원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아예 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근대의식의 성장’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육 과정안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이기에, 교과서 집필자들이 종교개혁을 교과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54년부터 2015 개정안까지의 내용 체계에서 종교개혁을 다루는 것은 소단원에서 일부 미미하지만 나타나는데, 즉 소단원의 주제로 6차 교육과정에 ‘르네상스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신항로의 개척과 상업혁명’, 7차 교육과정에 “근대의식의 바탕이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항로의 개척이 각기 근대 의식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한다”라고 학습주제에 설명할 뿐이다. 여전히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서 종교개혁은 소단원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방지원, 2017: 77-83). 1차-7차 교육과정 중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세계사 교과서에 서술한 것을 살펴보면 아주 미미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7차 교육과정의 교학사 고등학교 세계사에 보면 목차 VI. ‘유럽 근대 사회의 성장과 확대’, 제1장에 ‘근대의식의 각성’ 제하에 ‘근대문화의 부흥’, ‘새로운 종교의 탄생’, ‘종교전쟁’을 서술하였다. 금성출판사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목차 VI. ‘유럽 근대의식의 성장과 확대’, 제1장에 ‘근대의식의 각성’ 제하의 3가지 주제,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항로 개척과 유럽 세계의 확대’를 다룬 이전의 교육과정 교과서에 비하면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7차 교육과정이 세계의 역사를 서구 중심의 역사 강조를 지양하고 시대별로 문화권 방법을 검토하는 시도가 있었기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비교적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이후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서 보면 르네상스는 교육과정 편성에 소단원 학습주제로 언급되지만, 종교개혁은 역사교과서의 집필진들에게는 분량 축소 혹은 아예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정선영, 2001: 295-298).

III.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과서 분석

1. 2015 개정 세계사 교육과정의 성격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신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은 사회과 교육과정에 4가지 항목 즉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구성되어있다. 2015 개정의 성격을 보면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성격은 교과가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교과 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 그리고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본문은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심화된 상호 의존성은 문화와 역사적 경험이 다른 여러 국가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시켜 개인의 활동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켰다. 이 같은 세계화의 역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및 사건이나 문제를 집단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세계화를 통한 교류와 소통의 증대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해 온 여러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세계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사는 앞으로 지구촌에서 살아 나가야 할 학습자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 주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교육부, 2015: 206-207 ; 방지원 2020: 5).

이 세계화 강조는 오늘날 역사 서술의 경향이라고 본다. 기존의 역사 서술이 서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세계의 모든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강자 중심의 역사에서 모든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흐름이 반영되어 지구사의 역사 서술이 최근 역사 서술의 방향이기도 하다(강성호, 2018: 369-370 ; 조황호 외, 2018: 238-239 ; 강철구, 2007: 329-330 ; 임상우, 2008: 32, 44 ; 이옥순 외, 2007: 9 ; 전국역사교사모임, 2005: 1-2권). 역사교과 편찬 과정에서 세계화의 강조는 역사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요구하고 현실 역사에 내재한 종교와 문화의 갈등을 없애는 소통을 지향한다. 이러한 명분하에 이슬람과 같은 종교적 갈등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역사 서술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슬람의 교리와 이슬람의 영향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서술의 왜곡과 편향성을 보이기도 했다(교육부, 2015: 207 ; 이희수, 2001: 81-102 ; 최영길, 1987: 1-13 ; 소윤정, 2022: 251-288 ; 김성욱, 2021:123-164).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사지식과 역사적 사고를 함양하려면 교과서 서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서 집필 기준인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이다. 교육 과정의 내용 중 핵심은 내용 체계에 대한 것이다. 2015 개정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 208).

Table 1. 2015 Revised Curriculum Content System by Ministry of Education

대주제	소주제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 인류의 출현과 선사 문화
	○ 문명의 발생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서아시아-인도 지역의 역사	○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형성
	○ 인도의 역사와 다양한 종교·문화의 출현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 고대 지중해 세계
	○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 유럽 세계의 변화
	○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 대전	○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 두 차례의 세계 대전
현대 세계의 변화	○ 냉전과 탈냉전
	○ 21세기의 세계

내용 체계는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하는데, ‘영역’은 교과 성격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에 해당하고, ‘핵심개념’은 교과 개념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한다.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은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을 말하고, ‘내용요소’는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필수학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2015: 20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은 단 2회에 불과하다. 첫 번째 언급은 대주제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하에 소주제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의 학습요소에 ‘종교개혁’이 언급되고 있다.

Table 2. 2015 Revised Curriculum Element of Learning by Ministry of Education

소주제	학습 요소
고대 지중해 세계	아테네의 민주 정치,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문화, 알렉산드로스 제국, 헬레니즘 문화, 로마 공화정, 포에니 전쟁, 로마 제정, 로마 문화, 크리스티교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게르만족의 이동, 프랑크 왕국, 봉건제, 교황과 황제의 대립, 비잔티움 제국, 십자군 전쟁, 도시 발달, 상업의 부활, 르네상스, 종교개혁
유럽 세계의 변화	신항로의 개척, 유럽 교역망의 확장, 절대 왕정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과학 혁명, 계몽사상,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국민 국가, 자유주의, 민족주의, 산업 혁명, 사회주의

상기 ‘학습 요소’ 도표를 보면 ‘종교개혁’이 언급되는데 이후 ‘성취기준 해설’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후 ‘교수 학습 방법’에서, 부연설명을 하고 교수·학습을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및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개정안 편찬 내용을 분석하면 ‘학습요소’에 ‘종교개혁’을 언급한 후, ‘성취기준 해설’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종교개혁’ 서술을 전혀 다루지 않고 누락하고 있다. 단지 ‘평가 방법 및 유의사상’ 항목에서 “종교개혁이나 신항로의 개척에서 유래한 오늘날의 여러 모습을 조사하는 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은 역사 교육의 기본에서 벗어난 역사 서술의 문제이다. 역사 교과목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다양한 역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종합적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역사적 사고력과 을 길어야 한다(권태경, 2020: 1618 ; 허은철, 2018: 354). 그런데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보여준 역사 서술은 심각하다. 이는 종교개혁 사건에 대한 무지이거나 왜곡된 서술의 형태이다. 종교개혁은 중세와 근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으로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16세기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과서 편찬 지침에서 종교개혁 사건을 누락한 사실은 문제가 있다(권태경, 2011: 272). 오히려 2015 개정 중학교 역사를 보면 ‘유럽과 아메리카 역사의 전개’을 설명하면서 “이후 봉건제에 기반을 둔 중세 유럽의 특징을 다루고 중세 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나타난 유럽 사회의 변화,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을 거치며 유럽에서 자본주의와 민족 국가 체제가 발전하고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라고 서술되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봉건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초래된 사회 변화를 파악한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사건으로 종교개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비교 검토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

용은 교과 영역과 학습요소 그리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나타난다. 이 중학교 사회과 서술과 고등학교 세계사를 비교만 해도 얼마나 세계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지침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9역06-02] 유럽 중세 봉건 사회의 특징을 지배 세력 간의 주종 관계와 장원제를 통해 살펴본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끼친 영향을 통해 유럽 중세 사회의 해체 양상을 이해한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유럽인의 심성 및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여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 212-213).

2. 세계사 교과서의 종교개혁사 서술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2015개정 4종 세계사 교과서의 종교개혁과 관련한 역사서술의 단편적 언급, 그리고 종교개혁 용어에 무지한 집필진,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몰이해의 문제점을 알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종교개혁 설명이 목차 내용 체계에 누락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면 종교개혁을 대주제(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와 소주제(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에서 다루지만 종교개혁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소주제에 학습요소로 ‘종교개혁’ 단어만 언급할 뿐이다. 종교개혁은 서양 중세와 근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인데, 내용 체계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 종교 개혁이 언급이 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교수 학습 방법에 종교개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종교개혁이나 신항로의 개척에서 유래한 오늘날의 여러 모습을 조사하는 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할 정도이다. 이러한 서술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목표에 따르지 않는 서술이다.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주제에 ‘종교개혁’을 학습요소로 언급하지만, 유럽 세계가 형성되는데 종교개혁이 어떠한 배경과 영향을 주었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종교개혁은 중세말 교황권의 쇠퇴와 근대 르네상스의 시대적 배경에서 고전과 성경 원어 연구를 강조한 인문주의 시대이다. 즉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 중세와 근대의 요소가 공존한 시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유럽의 중세말 이후 근대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유럽 세계의 역사와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려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 주제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요소와 교수 학습과 평가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지 못하여 학생들이 유럽

세계를 이해하는데 심각한 한계를 야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 체계와 편찬 기준은 결국 4종 교과서의 비체계적인 구성과 서술의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세계사의 6개의 주제 중에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하나의 학습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4종의 세계사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4종의 세계사 교과서가 종교개혁을 서술함에 있어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고,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판사별로 종교개혁 서술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세계사 교과서 (비상교육)

비상 교과서를 보면 제4장 ‘유럽 아메리카의 지역의 역사’ 제2절 ‘유럽세계의 변화’에 ‘유럽세계가 변화하다’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다.

Table 3. Textbook Analysis of World History (Visang Education)

	종교개혁사 내용과 분석	출처
교과서 내용	<p>종교개혁의 전개. 알프스 이북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매하자 독일의 성직자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제후의 지지를 받으며 투쟁한 루터파 교회는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다(1555).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예정설을 주장하며 종교개혁에 성공하였다. 그는 근면하고 검소한 직업 생활을 강조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신의 은혜라고 주장하여 상공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였다. 이후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다. 종교개혁으로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종교(신교)가 생겨나면서 로마 가톨릭과 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 이 중 30년 전쟁은 국제 전쟁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랜 싸움 끝에 베스트팔렌 조약(1648)이 맺어져 제후가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 등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크리스티교 세계를 구교와 신교로 나누었고, 시민 계급과 신교도의 성장을 촉진하여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시민 혁명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었다.</p>	이병인 외, 2020: 126-127

<p>분석과 대안</p>	<p>분석(서술의 문제와 평가): 본문을 보면 루터의 95개조 항의문을 소개하면서 종교개혁의 배경을 설명하고, 칼빈과 영국의 종교개혁을 단지 3개의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어서 신구교 갈등의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조약을 언급하고 있다. 종교개혁에 대한 서술은 이것이 전부이다. 종교개혁의 배경과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세계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목차 주제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비상교과서의 종교개혁사 서술을 보면, 세계사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유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이 없다. 이런 서술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삽화로 구텐베르크 성경과 루터파와 칼빈파의 지도를 삽입하는 것은 좋은 구성인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에 사고력 키우기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가리켜 근대를 여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은 역사적 사고에 도움을 주는 좋은 질문이다(권태경, 2019: 1686).</p> <p>대안 제시: 루터의 95개조 항의문이 단순히 교황에 대한 루터의 종교적인 비판의 항의문이 아니라, 당시 중세 유럽의 절대 권위를 가진 교황권에 대한 비판이 유럽 사회를 변화를 가져온 사실을 설명하고 학습하게 해야 할 것이다. 루터를 교황과의 논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유럽 사회에 영향을 준 사실은 종교개혁과 독일의 민족주의, 루터의 성경 번역이 대중들의 계몽에 기여한 점을 설명하는 것이 개정안의 체계에 부합하는 서술이라고 본다. 칼빈에 대한 설명에서도 지엽적인 사실의 나열로 일관하고, 신학자들간에도 논쟁이 되는 난해한 칼빈의 예정설이 갑자기 언급되는데 이러한 예정론 교리를 어떻게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이 이해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유럽의 변화에 준 영향은 종교개혁이 종교적인 영역만의 개혁이 아니라, 프랑스 위그노를 통해 보여진 정치와 사회 변혁의 기초를 마련한 점과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교육의 체계를 마련한 사실과 칼빈의 소명과 직업의식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막스 베버의 논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등을 설명하는 것이 유럽 역사의 변화에 미친 칼빈의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권태경, 2004: 359 ; 최용준, 2018: 33-33).</p>
--------------------------	--

(2) 세계사 교과서 (천재교과서)

천재교과서 세계사를 보면 종교개혁을 ‘중세유럽 세계의 동요’라는 주제 하에 르네상스와 더불어 서술하고 있다.

Table 4. Textbook Analysis of World History (Chunjae Textbook)

	교과서 내용과 분석	출처
<p>교과서 내용</p>	<p>종교개혁.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 내내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4세기를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 증축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에서 면벌부 판매를 독려했다. 루터의 주장은 인쇄술의 발전 덕분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였고, 교황과 대립하던 독일의 제후들도 루터를 지지하였다. 루터파 제후들은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상대로 오랜 투쟁을 벌인 끝에 아우크스부르크 회의(1555)에서 루터파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구원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면서 현세에서의 금욕적인 생활 윤리와 근면 절약을 강조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수장법을 발표하여 영국왕이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고, 영국 교회를 교황의 지배권에서 독립시켜 영국 국교회를 출범시켰다.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신교)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나는 등 유럽 곳곳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p>	<p>김덕수 외, 2020: 134.</p>
<p>분석과 대안</p>	<p>분석(서술의 문제와 평가): 천재 교과서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설명을 1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있어, 지면의 할애에서도 분량이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적다. 이로 인해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영국의 개혁이 나열식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되어 역사적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종교개혁 사건이 유럽 사회에 변화를 주는 동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단순 사실 나열에 불과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중세는 교회와 국가와 관계를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였는데, 루터는 교회와 국가를 상호연관성이 있는 두 왕국으로 구분한 점은 이후 근대 정치사상 발전에 기여한 사상적 변화의 중요한 면이다. 단지 다른 교과서와 달리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설명을 면벌부 이미지 자료로 제시한 점은 좋은 구성이라고 본다(권태경, 2009: 130 ; 김장수, 2014: 51). 종교개혁 설명 이전에 에라스무스의 작품 우선예찬을 언급하고 설명한 것은 종교개혁의 배경이해에 도움이 되는 좋은 언급이다.</p> <p>교과서를 보면 ‘평가 질문’에서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하여 “교황은 어떤 형벌에 대해서도 용서하거나 사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를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하다”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출처 인용도 그렇고 이 설명이 학생들의 루터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운 질문이다. 칼빈과 관련하여, “우리는 신이 영원불변의 섭리에 미리 정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다”는 예정론을 갑자기 설명하고 있다. 칼빈의 예정론은 신학적 교리에서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지만,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세계사 교과서에 이 문제를 설명없이 다루게 되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p> <p>대안 제시: 종교개혁 서술에는 기본적 이해를 위해 목차에 체계가 있어야 한다. 유럽에서 종교개혁 주교재로 사용하는 교재를 보면 종교개혁에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Cameron, 1991: 9). 칼빈이 유럽 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루터와 달리 칼빈의 개혁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개혁 사건이 이후의 유럽의 근대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 사건에 대한 지면 할애는 적더라도 서술의 방향이 루터와 칼빈 영국의 종교개혁을 교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중세와 근대의 사상(문화)적인 측면에서 종교개혁의 변화를 설명하면 더 좋은 서술이 될 것이다.</p>	<p>김덕수 외, 2020: 133.</p>

(3). 세계사 교과서 (미래엔)

유럽세계의 형성과 동요 주제하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하나의 장으로 목차에 소개하고 있다.

Table 5. Textbook Analysis of World History (MiraeN)

	교과서 내용과 분석	출처
<p>교과서 내용</p>	<p>16세기 알프스 이북에서는 교회의 부패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할 비용을 마련하고자 면벌부를 판매하자, 독일의 신학 교수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교황과 교회를 비판하였다(1517).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은 교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항하였고, 마침내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1555).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를 계승한 칼뱅이 종교개혁에 나섰다. 칼뱅은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일체의 교리와 의식을 배격하고, 예정설을 주장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종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주장은 신흥 상공업자들의 환영을 받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지로 확산되었으며, 유럽 자본주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정치적·경제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국왕 헨리 8세는 교황이 자신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수장법을 공포하여 스스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그는 수도원을 해산하고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왕실 재산을 강화하였다. 그 뒤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법을 반포하여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다(1559).</p>	<p>최준채 외, 2019: 120-125.</p>
<p>분석과 대안</p>	<p>분석(서술의 문제와 평가): 미래엔 교과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설명한 이후,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다. 종교개혁 서술의 내용은 다른 교과서와 같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 마지막으로 가톨릭 개혁과 종교전쟁을 단순히 기본적으로 사실만을 약술하고 있다.</p> <p>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하나의 장으로 페이지에 걸쳐 소개하는 점은 좋은 구성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연구에 있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상호 별개의 사건이 아닌 상관관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고전에 대한 연구로 복귀를 주장하고,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인문주의적 배경을 같이하고 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는 별도의 제목으로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모어를 다루면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점을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다. 에라스무스의 주장과 북유럽의 특징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좋은 서술이다.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와 베스트팔렌조약을 탐구 활동으로 제시하면서 종교개혁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는 점도 좋은 편집이다.</p> <p>대안 제시: 역사는 사과의 학문이고 학생 스스로 역사 교사가 가르친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이 함양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서술의 편찬 구성에 역사적 사과의 함양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편찬 구성에서 아쉬운 것은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예를 들면 ‘루터’를 설명하면서 ‘사실 서술’ 그리고 ‘인물 소개’, ‘탐구 자료제시’, ‘스스로 학습’을 설명하면서 루터의 사상이 중세 유럽과 근대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고려하여 서술하면 학생들이 루터 이해를 하는데 좋은 역사적 지식이 될 것이라고 본다.</p>	<p>최준채 외, 2019: 122.</p>

(4). 세계사 교과서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제4장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주제 9에 별도의 목차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다.

Table 6. Textbook Analysis of World History (Kumsung Pub Co.)

	교과서 내용과 분석	출처
<p>교과서 내용</p>	<p>이탈리아 르네상스 14-15세기에 봉건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고 교회의 권위가 쇠퇴하면서, 인간의 개성과 합리성 그리고 세속적 욕구를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에서 찾으려는 문화 운동인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문주의가 발전하였다.</p> <p>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와 과학 기술의 발달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를 넘어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당시 알프스 이북에는 봉건 세력과 교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에 인문주의자는 교회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면서 초기 크리스토포로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성서 연구가 활발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여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p> <p>종교개혁과 종교 전쟁 알프스 이북에서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 강하였다.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하려고 면벌부를 판매하자, 독일의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인간의 구원이 오직 신앙과 은총에 달려 있고 신앙의 근거는 『성서』라고 주장하였다. 루터를 지지한 제후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호자를 자처한 황제에게 저항하였다. 마침내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루터파가 공인되었다(1555).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펼치며 종교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 윤리를 강조하며 경제적 성공을 신의 은총으로 여겼다. 이런 주장은 당시 자본주의의 확산과 맞물리며 신흥 상공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퍼졌다.</p>	<p>김형조 외, 2019: 128-131.</p>
<p>분석과 대안</p>	<p>분석(서술의 문제와 평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하나의 목차로 정하면서 설명 분량에 있어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에 비하여 종교개혁 설명이 축약되었다. 첫 페이지 핵심 질문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유럽인의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질문은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주는 좋은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배우는지를 설명하고 핵심어 그리고 생각지도, 핵심 역량 기르기를 별도로 제시하는 점도 다른 교과서가 시도하지 않는 좋은 구성이다.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설명하면서 “특히 성서 연구가 활발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여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서술은 다른 교과서에 비하면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서술이다(김형중 외, 2019: 129).</p> <p>대안 제시: 가장 아쉬운 서술은 종교개혁의 대표적 인물인 루터와 칼빈을 한 지면도 안 되는 1/4 정도 할애하여 설명하다 보니 루터와 칼빈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전혀 설명되지 못하는 서술이 되었다. 재세례파의 종교개혁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Nichols, 2009: 91). 교과서 자료 3에 제시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칼빈의 예정설에 대한 설명도 본문에서 단어를 언급하고 자료로 제시하면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 무엇을 사고하고 배워야 할지 혼동스러울 것이다. 역사 교과서 자료는 주제 본문에서 설명한 것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학습 평가와 토론 문제에 연관되어 서술되어야 될 것이다(Fisher, 1994: 286).</p>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5 개정안에 근거하여 집필된 현재 사용하는 4종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5 개정 교육 과정안이 문제인데, 그것은 종교개혁에 대한 집필자의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 학습 평가 방법의 내용에서 그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도 심각한 상황에 있다. 즉 모든 교과서가 종교개혁을 단순하게 나열식으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과 종교개혁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결과를 논리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 서술의 또 다른 문제로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종교적인 문제만의 개혁이 아닌, 16세기 유럽의 정치와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된 역사적 사건인 것을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성취기준과 평가 방법에 전혀 반영하여 집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라기는 필자가 분석한 것을 참고하여 2024년부터 새롭게 출판되는 세계사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를 함양하는 역사교육의 본질과 유럽의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누락없이 그리고 축약없이 객관적으로 서술되길 기대한다.

IV. 결론

세계사 교과서 역사 서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와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기준이다. 한국의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수 요목을 거쳐 7차에 걸친 교육 과정 이후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시대의 변화와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 내용과 체계가 수정이 되어왔다. 교육 과정 변천사에서 역사 과목은 국검정의 체제를 달리하면서 논란이 있어왔고, 교과와 필수와 선택 그리고 과목(한국사, 한국 근현대사, 동아시아, 세계사)의 비중과 수업 시수는 약간의 논쟁이 되어왔다. 종교개혁사가 서양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차 교육 과정까지는 비교적 교과서에 서술되어 왔는데,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 이르면서 르네상스는 주제로 다루고, 종교개혁은 내용 체계(대주제와 소주제)에서 누락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2015 개정 교육 과정안에도 소주제의 학습요소에 ‘종교개혁’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전부이다.

2015 개정 4종 세계사를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서술되지 못하는 서술의 축약 그리고 일부 사실의 왜곡이 드러났다. 세계사 교과서가 어떠한 내용 체계를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으로 미국 교과서의 편찬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계사 교과서(제13장)를 보면, “종교개혁의 전조, 루터와 독일의 개혁, 개혁의 확산, 개

혁의 영향, 가톨릭 개혁, 정치와 16세기 종교전쟁”을 내용 체계로 한다. 주목할 점은 역사적 사고를 역사 교과서에 중요한 서술 구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 서술 서두에 개혁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비판적 사고를 위하여 역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오늘날 세계의 종교와 사회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다(Spielvogel, 2005: 367-402 ; 민석홍, 1984: 377-393).

초중고 학교 현장의 역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교과서이다. 이 역사 교과서는 역사 교육과정안에 근거하여 집필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체계와 내용 그리고 이에 근거한 역사 교과서 집필이 중요하다. 본고는 현재 한국의 역사 교과서 서술의 문제를 교육부 2015 개정과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종교개혁 서술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우려는 앞으로 개정될 2022 개정안이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2024년부터 새로운 교과서가 편찬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세계사 교과서에 종교개혁 사건의 서술이 누락되었다. 종교개혁을 교육 개정안에 다루지 않고, 유럽 중세와 근대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스럽다. 종교개혁사 서술을 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2022 개정의 종교적 편향에 대한 다른 우려는 이슬람에 대한 의도적 편찬 구성이다. 교과서에서 이슬람에 대한 관련 서술은 본고의 중심 주제가 아니지만, 종교개혁사에 대한 서술은 누락하고 이슬람에 대한 서술은 과장된 서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며, 향후 이 문제는 별도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새롭게 개정될 2022 개정 역사 교과서에 종교적 편향의 서술은 심각한 상황이다(교육부, 2022b: 144-145).

교과서에서 역사는 객관적 서술이 가장 기본적인 서술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객관적 서술은 종교개혁과 같은 사건을 기독교 학문을 이유로 상세하게 많이 서술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 종교개혁의 사실들을 단순 서술하거나 나열하는 것은 학생들에 역사적 이해에 혼동만을 줄 뿐이다. 교과서 집필에 전문적인 종교개혁자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사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은 유럽의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이해가 없으면 중세 말과 근대초의 유럽의 역사를 설명하기 어렵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교과서가 수정 보완되어 출판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5). **사회과교육과정**. 2015-74호 별책 7. 세종: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74(7). *The Revised 2015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2a). **초등중학교 교육과정총론**. 2022-33호 별책 1. 세종: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22a). 2022-33(1). *The Revised 2015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2b). **사회과교육과정**. 2022-33호 별책 7. 세종: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22b). 2022-33(7). *The Revised 2015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김덕수·남중국·조영현·신유아·이은정·방대광·양택관·정동연 (2020). **고등학교 세계사**. 천재교육.
[Kim, D. S., Nam, J. K., Cho, Y. H., Shin, Y. A., Lee, Y. J., Bang, D. G., Yang, T. G. & Jung, D. Y. (2020). *World History*. Seoul: Chunjae Textbook.]
- 김형중·장문석·서각수·장두호·김정희·조예진 (2019).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Kim, H. J., Jang, M. S., Seo, G. S., Jang, D. H., Kim, J. H. & Cho, Y. J. (2019). *World History*. Seoul: Kumsung Pub Co.]
- 이병인·임승휘·김태훈·심원섭·김민정·황정미·임태현·이소영(2020). **고등학교 세계사**. 비상교육.
[Lee, B. I., Lim, S. H., Kim, T. H., Shim, W. S., Kim, M. J., Hwang, J. M., Lim, T. H. & Lee, S. Y. (2020). *World History*. Seoul: Visang Education]
- 최준채·윤영호·안정희·남궁원·조미영·정선아 (2019). **고등학교 세계사**. 미래엔.
[Choi, J. C., Yoon, Y. H., Ahn, J. H., N. W., Cho, M. Y. & Jeong, S. A. (2019). *World History*. Seoul: MiraeN]
- 강성호 (2018). 한국중학교 세계사교육과 서구중심주의-2015 교육과정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72. 369-390.
[Kwang, S. H. (2018). World History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and Western Centrim: Based on The Revised 2015 Curriculum. *The Study of Korean Studies*. 72. 369-390.]
- 강철구 (2007). 한국에서 서양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서양사론**. 92. 327-352.
[Kwang C. G. (2007). View of Wester History in Korea. *Jr. of Western History*. 92. 327-352.]
- 권태경 (2004). 칼빈의 교육 사상에 대한 연구: 제네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24. 333-362.
[Kwon, T. K. (2004). On the Education Thought of John Calvin. *Jr. of Chongshin Univ*. 24. 333-

362.]

- 권태경 (2009). 루터와 칼빈의 두 왕국론과 역사 이해. **성경과신학**. 51. 111-137.
- [Kwon, T. K. (2009). Two Kingdom Theory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of John Calvin and Martin Luther. *The Bible and Theology*. 51. 111-137.]
- 권태경 (2011).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역사 서술의 문제: 한국의 역사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19. 245-280.
- [Kwon, T. K. (2011). On the Historical Writings of Renaissance and Reformation. *Korea Reformed Journal*. 19. 245-280.]
- 권태경 (2019).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삽화에 대한 고찰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10). 1685-1700.
- [Kwon, T. K. (2019). On the Image of World History Textbook: Focusing on Reformation. *Jr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21(10). 1685-1700.]
- 권태경 (2020).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 대한 연구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11). 1617-1631.
- [Kwon, T. K. (2020) On the Historical Writings of World History: Focusing on Hellenism *Jr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21(11). 1617-1631.]
- 김성옥 (2021). 다음세대를 위한 이슬람교의 다와활동. **복음과선교**. 55. 123-164.
- [Kim, S. O. (2021). Muslim's Dawah Activities Toward the Next Generation. *Jr of Korea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 55. 123-164.]
- 김장수 (2014). **서양근대사**. 서울: 선학사.
- [Kim J. S. (2014). *Western Modern History*. Seoul: SunHakSa.]
- 방지원 (2017). 고등학교세계사 교과서의 '종교개혁' 내용 구성의 관점. **역사와경계**. 105. 71-124.
- [Bang, J. W. (2017). On the Unit Composition and Content Description of Reformation. *History and Boundaries*. 105. 71-124.]
- 방지원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교과서들은 역사학습의 '다원적 관점'을 어떻게 담았는가?. **역사교육논총**. 74. 4-41.
- [Bang J. W. (2020). How do "Korean history" Textbooks by the 2015 Revised Curriculum Embody and Support the 'Understanding History of 'Multi Perspectivity'?. *History Education Review*. 74. 4-41.]
- 소윤정 (2022). 다문화교육포방하는 친이슬람 세계사 개정 교과서. **복음과선교**. 60. 251-288.
- [So, Y. J. (2022). Revised World History Textbooks in the Pro-Islamic World Claiming to Advocate Multicultural Education, *Jr of Korea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 60. 251-288.]

- 이옥순·이종득·이태주·이평래·이희수·조흥국·한건수 (2007).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서울: 삼인.
- [Lee, O S., Lee, J. D., Lee, T. J., Lee, P. R., Lee, H. S., Cho, H. G. & Han, G. S. (2007). *Correction of World History Textbook*. Seoul: Samin.]
- 이용중 역 (2009). **세상을 바꾼 종교개혁이야기**. Nichols, S. (2007). *the Reformation*. 서울: 부흥과 개혁사.
- [Lee, Y. J. (2009). *the Reformation*. Seoul: Revival & Reformation. Trans. Nichols, S. (2007). *the Reformation*. Illinois: Crossway.]
- 이희수 (2001). 한국교과서의 타문화 왜곡: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22. 81-102.
- [Lee, H. S. (2001). Distortion of Other Culture in the Korea Textbook: on the Islam Korea *Jr of the Middle East Studies* 22 81-102.]
- 임상우 (2008). 동아시아에서의 유럽 중심적 역사관의 극복. **서강인문논총**. 24. 29-56.
- [Lim, S. W. (2008). Beyond Eurocentric Conception of History in the East Asia. *Humanities journal*. 24. 29-56.]
- 전국역사교사모임 (2005). **살아있는 세계사교과서**. 서울: 휴머니스트.
- [History Teacher Association. (2005). *Living World History Textbook*. Seoul: Humanist.]
- 정선영 (2001). **역사교육의 이해**. 서울: 삼지원.
- [Jung, S. Y. (2001). *Understanding of History Education*. Seoul: Samjiwon.]
- 조황호·조한경, 박상필 (2018).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변천과정 및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교과서 서술비교. **역사교육논총**. 67. 235-279.
- [Cho, W. H., Cho, H. G. & Park, S. P. (2018). On the Compilation History and Standards of National History Textbook. *History Education Review*. 67. 235-279.]
- 최상훈 (2005).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 교육연구**. 12. 205-236.
- [Choi, S. H. (2005). The Changes and Direction of History Curriculum for 60 Years.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12. 205-236.]
- 최영길 (1987). 한국교과서 및 우리말 사전에 왜곡 소개된 이슬람 실태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4. 1-13.
- [Choi, Y. K. (1987). Researches on the Distorted Islam in Korean Textbooks and Encyclopedias. *Journal of Human Studies*. 4. 1-13.]
- 최용준 (2018).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3. 323-351.
- [Choi, Y. J. (2018). A Research on J. Calvin's Reformation of Geneva and Its Transformation. *Faith & Scholarship*. 23. 323-351.]
- 허은철 (2018).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역사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 **신앙과 학문**. 23. 353-382.

[Heo, E. C. (2018). A Study on the Curriculum and History Textbook of the Christian World View. *Faith & Scholarship*. 23. 353-382.]

Cameron, Euan (1991). *The European Reformation*. Oxford: Oxford Univ Press.

Fisher, David A (1994). *World History for Christian Schools*. Greenville: Bob Jones Univ Press.

Spielvogel, Jackson J (2005). *Western Civilization*. Boston: Cengage.

Retrived from <http://ncic.re.kr/mobile.index2.do> (검색일 2023.02.06)

Retrived from <https://www.kice.re.kr/>. (검색일 2023.02.06)

종교개혁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 2015 개정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On the Curriculum and Historical Writings on the Reformation: Based on The Revised 2015 World History Textbooks

권태경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reformation)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서양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사 교과서를 보면 역사 서술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그리고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종교개혁의 내용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출판된 4종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종교개혁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일부 언급한 몇 가지 사실마저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있지 않는 서술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세계사 역사 교과서를 통해 나타난 종교개혁에 대한 서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먼저 교육부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세계사 과목에 종교개혁을 단원으로 구성한 내용을 살피고, 2015 개정안의 교육과정과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사의 서술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의 편찬 기준과 내용 체계가 수정 보완이 되어, 향후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서술이 객관적이고 편향적이지 않게 서술되기를 바란다.

세계사 교과서가 어떠한 내용 체계를 구성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안으로 미국 교과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계사 교과서(제13장)를 보면, “종교개혁의 전조, 루터와 독일의 개혁, 개혁의 확산, 개혁의 영향, 가톨릭 개혁, 정치와 16세기 종교전쟁”을 내용 체계로 한다. 주목할 점은 역사적 사고를 역사 교과서에 중요한 구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 서술 서두에 “개혁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비판적 사고를 위하여 역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오늘날 세계의 종교와 사회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역사는 객관적 서술이 가장 기본적인 서술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객관적 서술은 종교 개혁과 같은 사건을 기독교 학문을 이유로 비중있게 많이 서술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서술에서 의도적인 왜곡이나 핵심적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과서에 나열하는 것은 학생들에 혼동만을 줄 뿐이다. 전문적인 종교개혁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사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은 유럽의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 터닝 포인트가 역사적인 사건이다.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이해가 없으면 중세 말과 근대초의 유럽의 역사를 설명하기 어렵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교과서가 수정 보완되어 출판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종교개혁, 세계사, 교과서, 역사서술, 교육과정